

서울신문

버려진 병뚜껑 엮어 현대문제 은유 “예술은 예술... 국적 중요하지 않아”

가나 출신 설치미술가 엘 아나추이, 한국서 첫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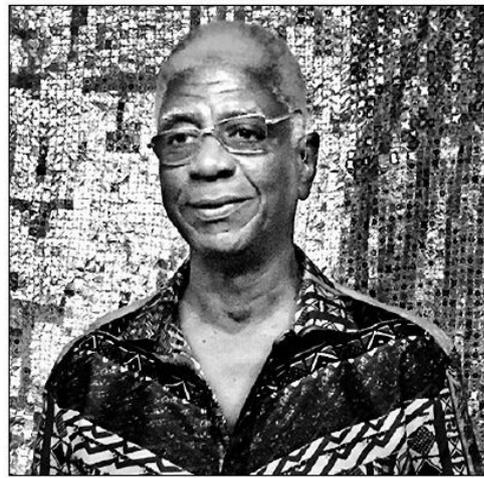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1세계, 2세계, 3세계라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술은 예술일 뿐입니다. 예술에서 국적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개인전을 위해 서울에 온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세계적 설치미술가 엘 아나추이(사진·73)는 26일 전시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바라캇서울 갤러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식민지라는 환경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에서 서구식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성인이 되면서 진짜 나의 문화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면서 “나의 문화가 갖는 상징에 집중하게 됐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 문화, 전통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 조각에 대한 관습 거부·실험... 국제적 명성

그는 “식민지교육은 서구문화를 가르쳤지만 아프리카 문화를 가르치지 않았다”며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면서 내가 받았던 교육에서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우리의 콘텐츠,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조각에 대한 전통적 관습과 정의를 거부하는 예술적 실험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아나추이는 다양한 정치적, 역사적 입장을 표현해 온 사회참여적인 예술가다. 그는 특히 버려진 병뚜껑 등 수많은 알루미늄 조각을 구리 끈으로 엮어 마치 금속성의 양탄자처럼 변형시킨 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이를 통해 소비와 낭비, 환경이라는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 언급한다. 또 식민지 시대 서구에 의해 체결된 반강제적인 무역협정에 따라 수입되기 시작한 술병 뚜껑을 모은 그의 작업은 아프리카 문화에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서구문화의 영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아나추이는 ‘관용의 토폴로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전시에서도 버려진 금속소재들을 이용한 태피스프린트와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나무 쟁반 이미지를



본뜬 판화 작업 9점을 소개한다.

아나추이는 버려진 소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손으로 만지면 마치 그 사람의 DNA 혹은 에너지가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것, 만진 것을 작품의 재료로 사용한다”면서 “작품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역사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아프리카 현대미술 대표... 대영박물관 등 소장

아프리카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아나추이의 작품은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드렘미술관, 워싱턴 스미스소니언박물관, 독일 뒤셀도르프의 쿤스트팔라스트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으며 그의 금속 태피스트리 작품은 베니스비엔날레, 파리 트리엔날레 등 다양한 국제 전시 행사에서 소개돼 왔다. 2004년 광주비엔날레에도 참여한 바 있는 그는 2015년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 평생공로상’을 받았다.

전시 열리는 바라캇서울은 고대 예술품 컬렉션을 보유한 150년 전통의 글로벌 화랑 바라캇의 서울 분점이다. 전시는 오는 11월 26일까지. 글·사진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